해제

일본 히라츠카 라이초우(平塚らいてう)의 글과 『세이토(青鞜)』의 논쟁

이 상 경*

우리 근대 신여성 연구에서 일본 세이토의 '신여자'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이 있었고, 세이토 동인들을 중심으로 '낙태논쟁' '모성보호논쟁'이 전개되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 세이토를 이끌었던 히라츠카 라이초우(1886~1971)의 글 중 '낙태논쟁'에 관련된 글, '모성보호논쟁'에 관련된 글 그리고 라이초우 자신의 '어머니로서 보낸 일년 간' 세 편을 번역해서 소개한다.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성'으로서의 생활 사이의 투쟁에 대하여」는 라이초우가 이토 노에(伊藤野枝 1895~1923 소설가, 여성운동가. 고등여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으나 며칠 후에 가출하였고 1912년에 최연소 세이토 동인이 되었다. 라이초우에 이어 세이토의 편집책임자가 되었으나 1916년 오스카 사카에(大杉栄)와 관계를 맺으면서 급속히 무정부주의로 기울었다. 7명의 아이를 낳았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오스카 사카에와 함께 학살 당했다)와 벌인 '낙태논쟁'에 관련된 글이다.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낙태논쟁'의 발단은 하라다 사츠키(原田皐月 1887~1933 1912년 세이토 동인이 되었고 1915년 음악가 하라다와 결혼하면서 소설을 발표했다. 후에 일본신부인협회에도 관여했으며 이혼 후 자살했다)의 「옥중의 여자로부터 남자에게」(1915.6)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낙태죄로 옥 중에 갇힌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낙태의 권리를 1인칭 시점으로 다루었는데 낙태를 긍정하는 이 작품을 게재했다고 해서 『세이토』는 '풍속괴란'죄로 발매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세이토』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던 이토 노에는 사츠키의 원고를 읽고 같은 호에 바로 반론을 썼다. 이토 노에는 태아를 모체의 부속물로 보는 사츠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생명'에의 찬가를 피력했다. 이러한 이토 노에의 주장에 대해 라이초우는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성'으로서의 생활 사이의 투쟁에 대하여」(1915.8)에서 이 문제를 단지 관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해서 '개인의 내적 생활'의 충실을 위한 선택으로서의 낙태와 피임을 긍정했다.

「모성 주장에 대하여 요사노 아키코 씨에게 드림」은 히라츠카 라이초우가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1878~1942 시인. 세이토의 찬조원으로서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시와 단가를 기고했다. 12명의 아이를 낳았다)를 비판하면서 '모성보호논쟁'을 촉발시킨 글이다. '모성보호논쟁'은 1916년에 요사노 아키코와 히라츠카 라이초우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918~1919년에 야마카와 키쿠에(山川菊榮 1890~1980 일찌기 사회주의에 접했고 1922년에는 일본 사회주의여성단체인 적란회(赤瀾會)를 결성했다)가 합류하여 여성은 가정 생활과 직업 생활을 어떻게 조화해야 하는지, 또 그 조화를 실현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등에 관해서 벌인 논쟁이다. 1916년 2월 요사노 아키코는 『태양』지에 발표한 「모성 편중을 배제한다」라는 글에서 톨스토이가 "인류의 본무는 두 개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인류의 행복의 증가, 다른 하나는 종족의 보존"이며, 전자는 '남성의 본무', 후자는 '여성의 본무 본성'으로 구별된다고 한 말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를 느낀다면서 당

시 소개되고 있던 엘렌 케이의 '모성중심설'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하여 개성을 무시하고 성별에 의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라이초우는 『문장세계』 1916년 5월호에 「모성 주장에 대하여 요사노 아키코 씨에게 드림」을 썼다. 이 글에서 라이초우는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케이의 사상은 "절대적 모성중심설"이 아니며 "개인으로서의 자유선택"을 중시하는 것인데 요사노 아키코가 케이를 너무 조야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1918년 3월 요사노 아키코가 「여자의 철저한 독립」에서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공장노동이라도 마다하지 말고 직업생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라이초우는 곧바로 1918년 5월 『부인공론』에 「모성보호 주장은 의뢰주의인가」를 써서 모성은 생명의 원천이며 부인은 어머니인 것으로 해서 개인적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가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여 사회적 보장만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을 두고 1918년 9월 야마카와 키쿠에는 「모성보호와 경제적 독립 - 요사노, 히라츠카 양자의 논쟁」을 써서, 요사노는 구미의 여권운동에, 히라츠카는 북유럽 중심의 모권운동의 계보에 있는데 두 사람 다 '불철저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제적 독립에도 모성보호에도 찬성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종결지었다.

「어머니로서 보낸 일년 간」(1917.5)는 라이초우 자신이 연하의 화가인 오쿠무라 히로시와 공동 생활하면서 낳은 아이를 키운 경험을 솔직히 토로한 글이다. 이 글은 나혜석의 「모 된 감상기」와 비교하여 읽을 만하다. 나혜석이 「모 된 감상기」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글을 쓰게 된 데는 라이초우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론의 장에 풀어 놓는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우리 여성의 역사에 없었던 일이기에 그것이 오로지 나혜석의 용기만일 것인가.

그런 점에서 나혜석이 일본 유학 시절 세이토의 '신여자' 들의 글과 행동을 충분히 보았을 것이고 그 중에는 라이초우의 글들이 있었기에 나혜석 자신 그러한 시도를 할 엄두를 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두 글은 다르다. 우선 분량 상으로 나혜석의 글이 양이 월등히 많다. 또한 양이 많은 만큼이나 다루는 시간 자체도 라이초우의 글은 육아일기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나혜석의 글은 좀더 포괄적인 여성의 '어머니 되기' 문제에 다가가 있다.

이 세 편의 글을 읽으면 세이토의 여자들이 벌인 낙태 피임 논쟁이나 모성보호논쟁 같은 것이 우리의 신여성들 사이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나혜석의 「모 된 감상기」에 일본에서의 '낙태 논쟁' 이나 '모성보호논쟁' 등에서 문제시 되었던 논점들이 모두 언급되어 있고 나혜석 자신 어떤 종류의 논쟁을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하다. 「모 된 감상기」에 대해 백결생이라는 남성이 「관념의 남루를 벗은 비애」라는 글로 나혜석을 비판하자 나혜석은 자신이 「모 된 감상기」를 쓰면서 같이 어머니 된 여성들의 반응을 기대했으나 단지 고루한 남성의 비판만 있다고 씁쓸해 했다.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상호 논쟁하고 생각대로 행동했던 일본의 세이토 동인들과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은 사회적 처지가 달랐던 것이다.

번역은 모두 小林登美枝 米田佐代子 編, 『平塚らいてう 評論集』(岩波書店, 1987)에 실린 것을 저본으로 했다. 번역자는 김경원(서울대 강사)이다.